

미국의 냉동공조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조사 및 분석

김 용 찬**, 김 민 수, 윤 재 성, 허 재 혁*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

Non-Tariff Barriers for HVAC Products in U.S.A

Yongchan Kim**, Min Soo Kim, Jae Sung Yoon, Jaehyeok Heo*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냉동공조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비관세 장벽(NTB)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과 외국 생산간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자국의 생산품과 수입품의 경쟁력 격차를 유발하는 무역정책 수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입 규제, 반덤핑 상계 관세, 통관 절차, 세이프 가드,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 조달, 기술인증, 지적 재산권, 서비스 장벽, 투자 장벽, 환경 규제, 경쟁 정책 등이 있다. 미국 냉장기기 수입시장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360만 달러로 수입시장의 2.2%를 차지하여 8위를 기록하였다. 가전분야의 미국 측 평균 관세는 2% 수준이며, 낮은 관세이나 비관세 장벽에 의한 경쟁력 저하를 고려할 때 미국이나 유럽산 보다 5-10% 저렴해야 한다. 비관세 장벽으로는 에너지 효율 인증 통해 규제하는 방법과 기술정책, 환경 보호정책, 세무정책, 경쟁정책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냉동공조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